

#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

# 순창군,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박차

22~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서 진행... 15일까지 사전 예약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상승 소식에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고된 중일 가정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임실군이 올해로 아홉 번째 김장페스티벌을 개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제9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포스터

수령할 경우 택배비를 제외한 18만 7천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해물 거둬들일수록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각 가정에서는 청정 임실에서 자란 배추와 고추 등 안전한 김장 재료로 입맛에 맞게 버무리기만

하면 김장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체험행사에서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방북해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미리 예약한 절임배추와 양념을 버무려 김치통에 가져가면 된다.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2016년 첫해부터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총 101톤이 소진되어 5억 1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관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사업 물량 100톤 이상을 확보하여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절임 배추와 양념을 판매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에서 생산된 건강한 배추와 고추, 무 등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김치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 세트 주문은 임실엔양념마사업단 전화(063-643-8949, 063-644-4289) 및 홈페이지(http://www.imsl.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391억원 투입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391억원(도비 274억원 포함)을 투입해 취수장과 정수장 증설, 배수지 신설 등 대규모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되고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상수도 설치 요청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시설로는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2017년부터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용수공급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최근 '순창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성정수장 증설을 포함한 용수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올해 말까지 적성정수장 증설을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적성정수장의 용수 공급능력은 하루 5,000톤에서 9,000톤



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2035년에 예상되는 하루 물 수요량 8,219톤을 충분히 match 수 있으며, 사고나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 물량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을 포함한 적성지구 급수구역 내 8천여 세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지며, 특히 그동안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해 온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불복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위생 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장래 용수 수요 증가와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시, 시청 광장서 사랑의 헌혈 실시

남원시가 지역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사랑의 헌혈은 혈액 수급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분기별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 분기 176명, 2분기 134명, 3분기 144명으로 보내 지자체 헌혈 실적 1위를 차지했다.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남원사랑상품권 2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남원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봉사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 중이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출생 장려 문화 확산 부모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난달 25일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생 장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군은 저출생 인식 전환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은 성별에 따른 역할의 고정관념을 완화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양육과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만들기과 자녀와의 친화적 관계 소통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은 현재 출생 장려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산후 조리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육아용품 지원(셋째 이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출생 장려 인식개선 교육 방안을 모색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양육 태도 및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돕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남원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남원시 관내에는 총 26개소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남원사랑카드 또는 모바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약 맺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주문하면 2천원 할인쿠폰을 제공 받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위생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라며 "연말까지 착한가격 업소를 28개소로 확대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초·중·고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실시

임실군이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사업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등 공인 교육을 통해 직·간접적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뿐 아니라 금연의 이로운 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

했다.

특히, 지난 28일 임실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흡연 예방 퀴즈쇼는 리모컨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호흡하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교육의 흥미를 자극해 그 효과를 높였다.

김대곤 보건소장은 "담배와 술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성인이 되어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어린이집 위·수탁 선정 심의 협약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인 운교어린이집과 서남하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수탁 선정 심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운교어린이집(대산면)과 서남하어린이집(월라동)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운교어린이집은 이번 위탁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아 주변 지역 영유아를

아우르는 역할로 대신할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과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신규 건립한 어린이집이며, 서남하어린이집을 서남교회에서 위탁받아 국공립으로 전환을 통해 남원시 공보육을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